

‘소대남편(셋서방, 間夫)’ 등장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

이수곤*

<차 례>

1. 연구 목적
2. 본고의 기본 입장
3. 시적 화자의 태도, 감춤 : ‘소대남편’ 외의 인물이 등장한 사설시조
4. 시적 화자의 태도, 드러냄 : ‘소대남편’이 등장한 사설시조
5. 기존 논의 검토와 후속 연구의 방향

〈국문초록〉

본고는 ‘소대남편’이 등장하는 사설시조를 분석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사설시조에는 ‘셋서방, 남의 님, 중, 장사치’ 등 다양한 인물이 기혼녀의 불륜 상대로 등장하는데, 이중 ‘소대남편, 셋서방, 後남편’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설시조는 여타 불륜담과는 이질적이었다.

‘남의 님’ 등이 등장하는 사설시조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는 성적 욕망을 가감 없이 표출하면서도 감춤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데 ‘소대남편’ 등장 사설시조의 시적 화자는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고 있었다. 상당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행동과 말을 담고 있었다. 기존 논의에서는 유교질서에 대한 반항 의식에서 이 작품군의 가치를 찾으려 했다.

그런데 ‘소대남편’은 본남편 외에 지속적 관계를 맺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 진다. 유교질서에 대한 반항 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그 당대 일상적 모습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노래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강의전담 조교수

□ 사설시조, 불륜, 소대남편, 유교질서, 반항의식, 일상성

1. 연구 목적

본고는 ‘소대남편’이 등장하는 사설시조를 분석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설시조에는 ‘셋서방, 남의 님, 중, 장사치’ 등 다양한 인물이 기혼녀의 불륜 상대로 등장한다. 이중 ‘소대남편, 셋서방, 後남편’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설시조는 여타 불륜담과는 이질적 성향이 있는데, 비교 고찰하여 그 구체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의 설정 이유와 고찰 내용을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기존 논의는 사설시조의 가치를 ‘탈중세’적 성격에서 찾으려 했다. ‘근대적 패러다임’으로 읽든, ‘유형적 쾌락 코드’로 해석하든 모두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근대 바로 전(前) 단계의 특징으로 간주하려는 연구가 대세를 이루었다.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던 문학 현상이기에 타당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적잖은 염려가 도사리고 있다. 이 두 패러다임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을 고유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러니깐 어떠한 입장에 서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입장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가 작품으로부터 마련되느냐에 있다는 점을 2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소대남편’이 등장하는 사설시조의 성격을 4장에서 살펴볼 예정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소대남편’이 아닌 불륜남이 등장하는 사설시조를 3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작품군이 갖는 특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면서 후속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의 방향 설정 논의를

요령 있게 기술하기 위해 기존 논의 검토를 통상과는 다르게 후미에 위치시켰다.

2. 본고의 기본 입장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이전의 국문시가와는 여러 부면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과감한 성교 장면의 묘사를 비롯한 성적 욕망의 가감 없는 표출에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읽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도 있는데, 예외적인 성격의 작품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적(數的)으로 적지 않다.

드립더 받듯 안으니 세 허리지 즈늬즌

紅裳을 거두치니 雪膚之豊肥 ㅎ고

舉脚踏坐 ㅎ니 半開 ㅎ紅牡丹이 發郁於春風이로다

進進코 又退退 ㅎ니 茂林 山中에 水春聲인가 ㅎ노라. 『진본 청구영언』

부드럽게 휘청거리는 가느다란 허리, 치마 속에 숨겨진 하얀 피부의 풍만함이 육감적이다. 여성의 성기를 ‘홍모란’, 성교 행위를 ‘진진, 퇴퇴, 수용성’으로 표현하여 구체화하였고, 조탁 없는 시어로 자극을 더하였다. 표현에 압도되어 주제 파악은 뒷전으로 물러난 듯싶다. 기실 조선 후기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국문시가의 소재이자 주제이다.

위 같은 노래의 출현은 조선 후기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문학적으로는 낯선 현상이다. 성적 욕망의 과감한 노출은 낯설기에 중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 대해서 대개 연구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적 욕망의 과감한 노출’의 의미 혹은 가치에 대

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이 이견들은 “이쯤 되면 우리는 그간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의 기본적인 시적 지향에 대해서조차 다시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¹⁾라 할 정도로 간극은 좁혀지기 힘들어 보이는데, 대표성을 지닌 두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발설을 유교 질서에 대한 반항 의식의 발로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사설시조를 진지하고 진중한 태도로 감상해야 할 문학으로 여기고, 연구자들은 주제 중심의 독법을 통해 이념 지향적 성향의 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사설시조를 가벼운 문학[Light Literature, 輕文學]으로 간주하여 진지한 문학과는 미적 기반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표현 중심으로 읽어서 그 자체가 주는 수사적 즐거움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연구 또한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행해진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A	B
성적 욕망 표출의 의미	반(反)유교	이질적 코드의 출현
미적 기반	이념 지향	놀이 지향
연구자의 시선과 독법	진지함, 주제 중심	웃음, 표현 중심

그런데 A와 B가 평행선을 이루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 문제 될 것은 없다. 아니 문제가 되더라도 어쩔 도리는 없다. 형상화된 문학을 통해 언표화되지 않은 작품의 ‘의도·의미·가치’ 등을 분석·판단·설명하는 작업을 문학연구의 주된 업무라고 할 때, 연구자가 밝혀낸 ‘의도·의미·가치’란 필연적이지 않고 개연적이며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연구의 개연성과 주관성은 연구자의 가치관을 토대를 두기에 생기는 현

1) 이형태, 「사설시조와 성적 욕망의 지층들」, 『민족문학사연구』 17권, 민족문학사학회, 2000, 173쪽.

상이다. 연구자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작품 해석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일이다.

A와 B견해는 객관성을 어느 정도 띤 작품 해석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연구자의 가치관과 더욱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A와 B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서로 만나기 힘든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일 수 있고, 문제거리가 되지 못한다. 다만 “거시적 설명 논리를 세우려는 데에 집착한 나머지 작품 이해의 실질이 불충분”²⁾하다면 곤란하다. 연구자의 가치관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에 입각한 작품 해석이 뒷받침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면에서 “근대, 탈중세, 담당층’ 등의 담론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일단 보류하고, 사설시조라는 갈래의 경험 양상들과 인물형, 화법, 미의식’을 탐사하여 미시적으로 포착하는 일이 긴요”³⁾하다는 견해는 의미가 심장하다.

A이든 B이든 작품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이든, 연구자 자신의 가치관과 이에서 비롯된 연구 시각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작품의 해석적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 입장이다.

3. 시적 화자의 태도, 감춤

: ‘소대남편’ 외의 인물이 등장한 사설시조

예나 지금이나 불륜은 불법적 행위이기에 손가락질의 대상임에도 존재

2) 김홍규, 『사설시조의 애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198쪽.

3)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23쪽.

하지 않던 시대는 없었다. 사회 성향과 구조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표출되었을 뿐이다. 시가의 史的 전개에서는 조선 후기 사설시조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스람마다 못할 것은 남의 넘씩다 情 드러 늦코
 말 못하니 익연하고 통스정 못하니 나 죽기구나
 씻이라고 씻어를 내며 넘히라고 홀터를 너며
 가지라고 썩거를 너며
 히동정 보라미라고 제 밥을 가지고 굶여를 낼가
 다만 秋波 여러 번에 남의 넘을 후려를 내여
 집신 간발하고 아닌 밤중에
 월장 도쥬야야 담 넘어 갈 제
 식이비 귀떡쟁이 잡녀석은 남의 속늬는 조금도 모로고
 안인 밤중에 밤스람 왔다고 소리를 칠 제
 요 너 간장이 다 녹는구나
 춤으로 네 모양 그리워서 나 못 살게네. 『고대본 악부』

‘남의 넘’을 갈망하는 여인이 주인공이다.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 임자 있는 남자여서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그래서 마음 얻기가 더 더욱 수월치 않다. 여러 번 시도했다고 토로한다. 드디어 성공하여 월담을 강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훼방꾼이 나타났다. 시아버지가 월담하려는 여인을 보고 “도둑이 왔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산통이 다 깨지고 만 것이다.

화자는 죽겠다고 하지만, 독자는 화자의 그리움에 몰입하기 힘들다. 장

4) 남자를 시적 화자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추파는 대개 여인이 남자를 향해 보내는 이룸답고 은밀한 눈빛을 뜻하기에 시적 화자를 여자로 보았다. 또 작품 후미에 ‘시아버지’ 호칭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시적 화자를 여자로 설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황한 진술, 예상하지 못했던 방해꾼의 출현, 그리움의 상대가 은밀하고도 야릇한 존재인 ‘남의 남’라는 점 등이 맞물리면서 그리움의 어조는 상대적으로 희석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진술은 “말 못하니 애연하고 통사정 못하니 나 죽겠구나”이다. 말을 못하니 슬프고, 안타까움을 털어놓지도 못하니 죽겠다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다. 말을 못하고 털어놓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적 화자가 기혼녀이고, 상대는 남의 남이기 때문이다.

기혼녀의 불륜 상대는 위 사설시조의 대상인 일반 남성애 그치지 않고 다양한데, ‘장사치’도 그 중 하나다. 장사치는 다른 불륜 상대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백거이는 <비파행>에서 “장사치는 이속에만 밝고, 이별은 가볍게 여깁니다.”(商人重利輕別離)라 하였다. 장사치에게 사랑이란 일회적인 즉 하룻밤의 인연일 뿐인가 싶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장사치와의 사랑은 짜릿한 쾌감을 위한 하룻밤의 정사에 그치기 쉽다.

술이라 흐면 물 뜰 혀 듯 흐고
 飮食이라 흐면 현 물등에 셔리황 다앗 듯
 兩 水腫다리 잡조지 팔에 할기눈
 안 풋 씹장이 고자 남진을 만석둥이라 안쳐 두고 보라
 窓 밖의 통메 장스 네나 즈고 니거라. 『악학습령』

식은는 하지 않으면서 술만 마신다. 다리를 붓고 팔은 가느다랗다. 눈은 한쪽으로 물려있고, 곱사등이고, 성불능이다.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남편이다. 그래서 찾은 것인 통메 장수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사가 내포되어 있는 듯한 표현이다. 이 사설시조의 시적 화자는 장사치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장사치는 하룻밤의 정사로 성적 욕구를 풀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상대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에 굶주린 여인과 장사치의 대화체로 된 사설시조가 여러 수 있다.

딧들에 丹著 丹술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호 몇 가지나 웨는이 사자

알애들경 옷등경 걸등경 즈율이

수췌 국이 동회 銅爐口 가옵네

大牧官 女妓 小各官 酒湯이

本是 쏘어져 물 조로로 흘으는 구머 막키여

장스야 막킴은 막혀도 後入말 업씨 막혀라. 『일석본 청구영언』

‘딧들에’로 시작되는 사설시조는 어떻게 시작하든 끝은 성적 이야기이다. 수저 묶음을 판다로 시작되었는데, 끝은 엉뚱하게도 구멍을 때우고 또 뒷말 단속을 하는 당부이다. 오직 관심의 초점은 성적인 데 있는 듯하다. 일상적 대화를 옮겨놓은 것이기에 이전 시가와 비교하여 생경하다고 보는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독법이다. 앞에 열거해놓은 모든 물건은 성적 말놀음을 위한 일종의 포석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장사치에게 오랜 기간을 두고 쌓는 애뜻한 정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룻밤의 쾌락, 일회성의 관계일 뿐이다. 온갖 곳을 다니며 산전수전 다 겪은 장사치와 성적 농담에 꽤나 익숙한 여염집 아낙네의 농염한 농짓거리가 위 노래를 비롯한 ‘장사치-여인’ 대화체 사설시조류의 일반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위 노래는 장사치와 여염집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목소리는 둘만의 은밀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뒷말이 나오면 곤란하다. <쌍화점>의 종결부와 비슷하다. <스람마다~>가 임에 대한 그리

움을 토로할 길 없는 답답한 마음에서 비롯된 노래라면, <딕들에 丹著 ~>는 은밀한 대화가 주는 짜릿한 쾌감에서 비롯된 노래라 하겠다.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은 시적 화자의 태도가 감춤을 전제로 한다는 데에 있다. 드러내기를 꺼려하기로는 ‘중’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놈도 사름이 냥햐야 자고 가니 그립드고
중의 송낙 나 베우고 내 족도리 중놈 베고
중의 長衫은 나 덮습고 내 치마란 중노 덮고
자다가 썩드르니 돌희 스량이
송낙으로 ㅎ나 족도리로 ㅎ나
이튼날 ㅎ던 일 싱각ㅎ니 흥글항글 ㅎ여라. 『진본 청구영언』

스님과 여염집 아낙네의 불륜 현장을 노래하였다. 족도리 운운으로 봐서 기혼녀이다. 스님과 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흥글항글”이다. “흥글항글”은 그날의 기억을 되새김질한 결과이다. 그날을 떠올리며 남모르게 슬쩍 미소 짓는 영큼함을 나타내는 의태어라 여겨진다.

스님과 맺은 쾌락적 성애의 즐거움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여기저기에서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라는 사간원의 요청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5) 『태종실록』 4년 12월 8일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간원의 요청이 있다. “佛氏의 도는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宗旨로 삼고, 婦女의 도리는 단정하고 정숙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히 세워서, 무릇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를 금단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風教를 밝게 하였습니다. 근래 법령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가 절을 올라가는 것이 길에 끊이지 않으니, 공공연히 淫行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것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는데, 심히 時政의 아름다운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攸司로 하여금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부모를 추모하는 법회는 물론이고 일절 모두 금단하여, 풍속을 바로잡게 하소서.”

스님 사랑은 여전하다. 은밀하고 야릇한 관계를 끊기에는 그 즐거움이 너
무도 컸기 때문일까.

窓 받기 어른어른 흐느니 小僧이울소이다
어제 저녁의 動鈴 흐라 왔든 둥이울느니
 關氏님 즈는 房 독도리 버셔 거는 말 그턱
 이 너 소리 송낙을 걸고 가자 왔소
저 둥아 걸기는 걸고 갈지라도 後스말이나 업게 흐여라. 『악학습령』

즐거움은 컸지만 드러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되들에 丹蓍~>와
같이 뒤탈을 걱정하고 있다. 불륜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역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결혼 후 찾아온 다른 이성과의
깊은 관계는 발각되기 전까지 숨기려고 노력한다. 법과 관계를 떠나서도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떼뺏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인류 통성에
비춰봐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불륜을 모티프로 하는 사설시조 속
시적 화자의 태도는 은밀함, 숨김, 감춤을 기본 전제로 한다. 불륜 모티프
는 감춤을 전제되기에 아래 사설시조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임이 온다 하거늘 저녁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 산 바라보니
 거뭇희끗 서 있거늘 저야 임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배임배 임배곰배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 가서
 정앿말 하려 하고 걸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겠다
모처라 밤이기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변 하괘라⁶⁾

『진본 청구영언』

밥을 해 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여자다. 기생은 아니다. 기생이라 하면 기다리던 임과의 만남을 위해 밥을 일찍 지어 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오면 신분에 따라 나뉘었던 주거지가 섞여.⁷⁾ 양반 규수일 수도 중인의 아내일 수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평민의 아내일 수도 있다. 밥 운운으로 봐서는 기혼일 가능성이 높다.

기다리던 임은 누구였을까. 일단 남편은 아니다. 미리 말하고 집에 가는 남편은 없고, 아내가 남편과 만나기 위해 밥을 일찍 지어 먹을 리도 없다. 같이 먹어야 정상이 아닐까. 허겁지겁 달려가는 장면도 대상이 남편이 기에는 너무도 간절하다. 남편 맞이를 이렇게 앞뒤 정황을 살피지 못할 정도로 할 경우란 그리 흔하지 않다. 조선 시대 혼인은 가문의 위상과 웃어른들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부부간의 정이란 승냥처럼 구수할 뿐, 연정의 설렘을 느끼기는 어렵다.⁸⁾ “위령충창” 달려가서 마음속 말을 하려고 할 때, “홀깃” 볼 수밖에 없다. 떳떳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일까.⁹⁾ 아래 노래 역시 감춤이 전제되어 있다.

6) 현대역은 김홍규가 역주한 『사설시조』(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를 따랐다.

7) 김정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색슈얼리티의 공간화』,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94쪽.

8) 김홍규,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前史』,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43쪽.

9) <임이 온다 하거늘 ~>에 대한 해석은 이수근, 『‘불륜담’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비교문학』 제52집, 한국비교문학회, 2010, 92~5쪽을 참고하여 요약하였다.

이르랴 보자 이르랴 보자 내 아니 이르랴 네 남편더러
 거짓 것으로 물 걷는 체하고
 통을량은 내려서 우물전에 놓고
 또아리 벗어 통조지에 걸고
 건너 집 작은 김서방을 눈짓해 불러 내어
 두 손목 마주 덥석 쥐고 수군수군 말하다가
 삼 발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 하던지
 잔 삼은 쓰러지고 굵은 삼대 끝만 남아
 우줄우줄 하더라 하고
 내 아니 이르랴 네 남편더러
 저 아이 입이 보드라와 거짓말 말아스라
 우리는 마을 지어미라 실삼 조금 캐더니라. 『진본 청구영언』

유부녀와 건넌집 김 서방 사이에 벌어진 불륜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 사람은 유부녀의 행위를 불륜으로 보고, 유부녀는 산삼을 캐는 행위였다고 궁색한 대응을 한다. 두 사람의 관점 차이가 말다툼의 출발점이다. 유부녀의 대답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종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묘사에 의해 자명해진다. 손목을 마주 잡고 말하는 행위, 잔 삼은 쓰러지고 굵은 삼은 끝만 남았다는 정황은 행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거짓으로 물을 걷는 체한다. 물통을 내리고 또아리는 통손잡이에 걸었으니 물 걷는 일에는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다. 김 서방을 눈짓으로 불러냈으니 조심스럽고도 은밀한 행위이다. 만나자마자 손을 덥석 잡는다. 서두름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애절함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할 것이다. 수군수군 말을 한다. 야릇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삼밭에서의 묘사는 정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위협에 유부녀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변명 역시 일종의 감춤 행위이다.

이상 불륜을 모티프로 한 몇 편의 사설시조를 살펴보았다. 시적 화자의 태도가 감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들은 공통된다. 그런데 다음에 살펴볼 사설시조들은 불륜을 모티프로 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시적 화자의 태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시적 화자의 태도, 드러냄

: ‘소대남편’이 등장한 사설시조

‘소대남편, 셋서방, 뒷남편’ 등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인물군의 호칭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등장하는 사설시조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나 행동은 은밀, 감춤과는 거리가 멀어 주목된다.

어이려뇨 어이려뇨 식어마님 어이려뇨
소대남편의 밥을 담다가 늦주걱 잘늘 부르쳐시니
이를 어이혀려뇨 식어마님아
저 야기 하 걱정 마스라
우리도 저머신 제 만히 것거 보왔노라. 『진본 청구영언』

소대남편이 등장하는 시조 중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대화이다. 며느리는 소대남편의 밥을 푸다가 늦주걱을 부러뜨린다. 소대남편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 늦주걱으로 밥을 꼭꼭 눌렀다. 얼마나 많이 담으려고 했던가. 그만 늦주걱이 부러졌다. 이를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에게 고백한다. 어떻게 이처럼 과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대화를 억지로 연출한 희극적 가상¹⁰⁾이라고 생

각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껏 유지했던 나름의 긴장은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꺾어 보았노라”라는 말과 함께 풀린다. 이 발언의 주체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제삼자일 수도 있다. 주체가 시어머니일 경우, 등장인물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셋서방을 둔 적이 있거나 현재 두고 있는 아낙네들이다.¹¹⁾ 주체가 제삼자일 경우,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되어 셋서방을 둔 경험은 보편적인 경험으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보편적인 경험의 표출로 보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일까?

“규범을 넘어서는 욕망의 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폭로”, “불가능성이 중첩된 작중상황은 웃음 속에서 현실적 개연성의 여지를 스스로 지워 버린다”¹²⁾로 논의될 정도로 <어이려뇨~>는 극단적이다. 3장에서 분석한 사설시조와는 시적 화자의 태도에 있어서 너무도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각시늬 내 쫓이 되나 내 각시의 後人난편이 되나
 곳 본 나뻬 물 본 기러기
 줄에 조춘 거미 고기 본 가마오지
 가지에 짓이오 슈박에 족술이로다
 각시늬 ᄇ나 水鐵匠의 딸이오 나 ᄇ나 집匠이로
 솟 지고 나쁜 쇠로 가마 질가 ᄇ노라. 『진본 청구영언』

남성의 구애를 담은 노래이다. 각시가 첩이 되거나 내가 뒷남편이 되자고 하였다. 둘의 관계는 꽃을 본 나비 같고, 물 본 기러기다. 각시는 무쇠장이 딸이고, 남자는 집쟁이다. 천생연분임을 강조하는 이 노래는 처녀

10) 김홍규(2015), 앞의 책, 200쪽.

11) 김홍규,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출판부, 2002, 43쪽.

12) 김홍규(2015), 앞의 책, 200~1쪽.

총각이 아닌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 오가는 내용이다. 첩과 뒷남편이란 시어가 이들의 입장과 처지를 말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後남편’은 특정 관계를 지칭하는 호칭인가, 아니면 본남편은 아니기에 무심코 붙여진 호칭인가? 아래 글은 이야기이기에 확실한 증거로서의 성격은 약하지만, 어느 정도의 단서는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제시하였다.

갓바치가 없는 틈을 타 그의 집에 갔다. 갓바치의 처는 마침 임신 중이었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듣자니 그대가 임신을 했다는데 당신 자식이 귀가 없는 것을 아느냐. 내 특별히 귀를 붙여주러 왔네.”

“임신이면 임신이지, 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갓바치의 아내는 남편을 둘 두지 않으면 귀 없는 아기를 낳지. 갓바치는 아기는 잘 만들지만 귀는 못 만들거든. 내 그대가 다른 남편[後夫]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뱃속의 아기도 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¹³⁾

갓바치가 거짓된 말로 자신의 딸을 범하자, 딸의 아버지가 갓바치 아내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이야기이다. 딸의 아버지의 말에 아내는 “귀 없는 아기를 낳느니 다른 남자와 자더라도 온전한 아기를 낳겠어요”라 대답한다. “다른 남자”는 원문에 ‘後夫’로 나와있다. 이 대화를 보면 두 남편을 갖는 것이 존재했던 사회 현상임을 알 수 있을 듯하다. “내 그대가 다른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는 後夫의 존재가 전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시네 내 훗이 되나 내 각시의 後남편이 되나>에서 “後남편”은 특정한 관계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소대남편, 셋서방, 後남편” 등

13) 정병설 풀고 씌, 『조선의 음담패설』, 예맥, 2010, 64쪽.

으로 불리는 인물은 여타의 불륜 상대와는 성격을 달리하지 않을까하는 추측은 아래 작품을 읽으면 더욱 확고해진다.

밋남편 廣州 | 섹리뷔 장소
 쇼대난편 朔寧이라 닛뷔 장소
 눈경의 거론 님은 쭈썩 쭈두려 방망치 장소
 돌호로 가마 흥도께 장소 빙빙 도라 물레 장소
 우물전에 치다라 근대근대 ㅎ다가
 위령충창 풍 섹져 물 듬복 써너는 드레꼭지 장소
 어디 가 이 얼골 가지고 조려 장스를 못 어드리 『진본 청구영언』

남성 편력이 상당한 여성이 화자다. 여인의 남성으로 등장하는 장사꾼들이 파는 물건이 예사롭지 않다. 똑딱 두드리는 듯한 방망이 장사, 도르르 감는 흥두께 장사, 빙빙 도는 물레 장사, 물을 듬뿍 떠내는 드레꼭지 장사 등의 묘사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킨다. 이 노래는 商행위와 性행위의 유사성을 은유 기법으로 표출한 일종의 말놀이이다.¹⁴⁾

다섯 장사꾼들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여인은 조리 장사까지 얻고자 한다. 상식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당대 여인에게 요구했던 유교적 이데올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위다.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여인의 행위를 당시 사회적 윤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¹⁵⁾ 여기서 눈여겨 보고 싶은 것은 상대 장사꾼을 “밋남편”과 “쇼대난편”, 그리고 나머지로 분류한다는 데에 있다. “쇼대난편”은 밋남편은 아니

14) 류해춘, 『상행위를 매개로 한 사설시조의 성담론』, 『우리문학연구』 22집, 2007, 110쪽.

15) 같은 곳.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여인은 오직 성적 욕망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성적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여인으로 규정하고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사설시조를 소비적이고 유희적인 경향의 문학으로 보고자 한다.

지만 그렇다고 눈 맞아 하룻밤으로 스쳐지나는 관계도 아님을 나타내는 징표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즉 소대남편은 일상적으로 일정한 관련을 맺는 존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에 불륜의 분류 체계에서 위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병설은 ‘소대남편, 셋서방, 後남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

- ◆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를 보면 주로 평민들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후부’가 나온다.
- ◆ 하층의 여자가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면서 여전히 본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듯하다.
- ◆ 소대남편을 ‘셋서방’이나 ‘간부’, 곧 남편이 있는 여자가 몰래 관계하는 남자로 풀이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소대남편은 어엿한 남편으로, 어느 정도는 공인된 부부 관계에 포함된다.
- ◆ 소대남편은 비록 본남편만큼 떳떳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받는 부부 관계의 일부로 보인다.¹⁶⁾

이 견해는 좀 더 실증적인 조사를 토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자는 작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동의하는 입장에 있다. <어이려뇨 어이려뇨~>에서 언급하였듯, 다소 모순된 진술처럼 여겨졌던 ‘과감한 내용의 표출’과 ‘보편적 경험’이라는 분석 결과는 ‘소대남편, 셋서방’의 위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노래도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밋남진 그 놈 자총 병거지 쓴 놈
소딕 서방 그 놈은 샷병거지 쓴 놈 그 놈
밋남진 그 놈 자총 병거지 쓴 놈은

16) 정병설(2010), 앞의 책, 66~7쪽.

다 뵈는 눈에 경어이로되
밤中만 샷병거지 쓴 놈 보면 실별 본 듯 흥여라 『육당본 청구영언』

‘본남편/샷서방’의 대립은 ‘말총 병거지/샷갓병거지’의 대립과 병치된다. 화자의 입장에서 ‘허수아비/샷별’이라는 사뭇 다른 평가를 한다. 본남편은 말총 병거지로 비유하고 허수아비로 평가한다. 샷서방은 샷갓 병거지이며 샷별이다. ‘샷서방’은 한번으로 스쳐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소대서방과는 어느 정도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밋남편과 소대서방은 자연스러운 비교의 대상이다. 본 연구자는 아래에 제시한 노래 속 여인을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서나 봄직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다.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 같이 알미우라
미운 입 오며는 꼬리를 뽀뽀 치며
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입 오며는 뒷발로 버둥버둥 무르락 나오랴
강강 짚어서 돌아가게 한다
썩 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진본 청구영언』

이 노래를 두고 본 연구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개에게 화풀이하는 재밌는 이야기다. 자신의 감정을 개에게 의탁한 참신하고 기발한 노래다. “꼬리를 뽀뽀 치”고, “버둥버둥” 등의 의태어가 실감을 더 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썩 밥”을 먹이지 않겠다는 화자의 발화는 진솔하고 소박한 심정의 표출이면서, 입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낸다. 패러디한 작품도 있어 당시 유행했던 노래로 짐작된다.

통상 기생집은 개를 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해 보건대, 공간적 배경이

여염집이다. 화자는 기혼일 가능성이 많다. 개의 행동이 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녀라면 달라질 이유가 없다. 두 입 모두에게 개는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두 입은 각각 누구일까.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입은 주인이다, 여인은 주인을 미운 입으로 지칭한다. 개에게는 주인이면서 여인에게는 미운 사람이다. 그러니 미운 입은 남편이다. 이에 ‘고운 입’을 정부(情夫)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리이다. 그러면 이 노래는 정부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고, 화자는 과감하고도 용감무쌍한 여인이다.¹⁷⁾

시적 화자를 “과감하고도 용감무쌍한 여인”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어쩌면 수정해야 할 판단일지도 모르겠다. “고운 입”이 셋서방을 뜻한다면, 어느 정도 공인된 존재를 집으로 들이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막장 드라마인 것 같다는 느낌 역시 수정을 요하는 견해라 할 수 있겠다.

‘소대남편’이 등장하는 사설시조 속 불륜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는 감춤과는 거리가 멀다. 겉으로 대놓고 드러낸다. 당당하기까지 한 느낌마저 든다. 여타 불륜담을 소재로 한 사설시조가 감춤을 전제로 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과감한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불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정도는 지나치다. 어쩌서 이러한 표출이 가능한 것일까, 조선 후기에서는 일상적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한 장면이었기에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표출하기 위해 기획된 허구의 상황을 노래한 것일까? 기존 논의는 대개 무엇인가를 의도한 가상 허구의 상황의 표출로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였다. V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17) 이수근, 『조선 후기 탈중세적 징후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4, 132~3쪽.

5. 기존 논의 검토와 후속 연구의 방향

먼저 ‘소대남편’이 등장하는 사실시조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점검해보자. <밋남진 그놈~>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개 아래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장황하게 인용하였다.

붉은 말총 병거지를 쓴 본남편은 빈 논의 허수아비처럼 성적(性的)으로 무력하되, 밤중에 찾아온 샷갓병거지를 쓴 셋서방은 셋별 본 듯 반갑다는 것이다. 성적 차원의 비교 우위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본남편의 지위는 추락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일까? 그녀는 육정의 화신과 같은 존재인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텍스트에 내재한다. 금방 얘기했듯이 남편과 정부 두 상대에게 동일하게 비칭(卑稱)을 써서 냉소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본래는 아름다웠으나 추한 괴물로 변한 메두사처럼 이 여인도 간통이라는 금기적 모티프를 도입하여 가부장적인 규율 질서를 비웃어 버린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 노래의 진정한 의도는 달리 찾아야 할 것이다. 본남편과 셋서방은 물론 자신마저 희화적 대상으로 내던지면서 경직된 제도에 짓눌려 잃어버린 애정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방어적으로 제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⁸⁾

이 노래는 ‘놈’이 여덟 번이나 반복된다. ‘놈’을 본남편과 셋서방을 향한 호칭으로 간주하면, 지향점이 가부장적 규율 질서에 대한 냉소에 있다는 독법이 가능하다.¹⁹⁾ 그런데 ‘놈’은 성기를 지칭한다고 판단된다. 본남편은 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에 욕먹는 존재일 수 있겠으나,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셋서방까지 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8) 이형대, 『사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304~6쪽.

19) 같은 곳.

초장의 내용을 현대역하면, ‘본남편의 성기는 말총 병거지처럼 생긴 놈이다’ 정도가 아닐까 한다. “놈”을 남편을 향한 호칭으로 보고 남성에 대한 냉소로 보는 독법은 지나치게 여성 중심적 연구 시각에 경도된 데에서 비롯된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이 노래는 본남편과 셋서방을 성기 그리고 잠자리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²⁰⁾ <본남편 그 놈~>을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반항, 남성적 권위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연구자가 설정해 놓은 이념의 틀을 엄두에 두면서 발생된 현상으로 여겨진다. <어이러노 어이러뇨~>를 두고 이루어진 해석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시어머니는 탈윤리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왜 연대를 행하였을까. 일상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에서 연대를 취하는 경우는 더 강한 공동의 적이 있을 때와 공동의 죄를 범하여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배제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관계에서는 절대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위상에 있지만, 가부장질서와 관계 속에서는 약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처럼 불륜의 죄를 저지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의 죄의식과 가부장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하였다는 피해의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륜의 연대를 구성한 바탕이 되었다. …(중략)… 불륜의 연대가 향하는 화살은 가부장이다. 그러기에, 불륜의 연대는 가부장에 대한 저항의 연대로 전환한다. 서로 적대적이었던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남성으로부터 억압당하고 배제당하던 여성으로서 연대하여 가부장과 가부장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유교 이데올로기 및 훈육체계를 전면으로 거부하며 그들의 권력 기반인 가족 질서와 재력에 균열을 가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²¹⁾

20) <밋남편 그놈~>에 대한 해석은 이수곤, 『결혼 후 찾아온 사랑』에 대한 인식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국제어문』 58집, 국제어문학회, 2013, 387~8쪽을 참고하여 요약하였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불륜은 알리기 꺼려한다. 발각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토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시어머니는 누구인가, 남편의 어머니 아닌가. 게다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된 시어머니의 과거. 일련의 고백 시리즈가 가능한 것인가. 해석이 어렵다. 의미 찾기란 더더욱 곤혹스럽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외부의 강력한 적은 내부의 적을 동지로 만든다는 사회 법칙을 끌어와 “유교이데올로기”와 “훈육체계”에 대한 전면 거부로 해석하였다.

사설시조를 삶의 진지한 성찰을 위한 문학으로 여기고, 이를 거시적인 틀로 정한 후 작품을 분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과연 이 노래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인식이 없다는 말할 수는 없다. 무의식 중에 내포된 의미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시적 틀이 오히려 미시적 분석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의 두 해석에는 공통점이 있다. 언표화된 성적 욕망은 육욕(肉慾)이 아닌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가상의 장치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홍규는 이를 “불가능한 대화를 억지로 연출한 희극적 가상”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니깐 대개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의도를 표출하기 위해 실제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상황의 연출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거개의 기존 논의는 이점을 전제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이 작품들이 ‘소대남편’과 관련하여 빚어질 수 있는 일상적 삶에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석과 가치는 달라져야

21) 이도흠, 『사설시조 담론 주도층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예술적 지향성』, 『한국시가연구』 제36집, 한국시가학회, 2014, 109~10쪽.

할 것이다. 즉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반항의식의 발로로 보려는 기존 논의의 시도는 재고의 여지가 있게 된다. 끼득끼득거리는 은밀한 웃음을 머금게 하는, 그래서 다분히 유희적으로 기능했던 작품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시조의 가치는 이전에 없었던 이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런데 그 이질적인 내용이 일상적 삶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 일상적 삶 그것이 성적 욕망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가감 없이 노출하고 있다는 점, 가감 없는 노출을 진지한 어조가 아닌 가벼운 말놀이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대남편’ 등장 사설시조의 가치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4장에서 야담 등의 방증 자료를 통해 미흡하나마 견해를 말했듯, 본 연구의 입장은 ‘소대남편’ 등장 사설시조의 상황이 일상적 삶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

이것이 타당한 논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학 내·외적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여 ‘소대남편’의 위상을 밝혀내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본고를 잇는 후속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그 자료로는 우선, 당대의 풍속을 반영하고 있는 야담집인 <기이재상담(紀伊齋常談)>과 <유년공부(酉年工夫)> 등이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정조 때 사형(死刑)에 대한 판결을 모아 놓은 『심리록(審理錄)』, 정약용의 『흠휼신서(欽欽新書)』 등의 문학 외적 자료도 주요 고찰 대상이 된다. 이들 자료를 통해 ‘소대남편’ 위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진다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마련되어 사설시조의 진면목이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3~211쪽.
- 김홍규, 「사설시조의 애정과 성적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181~203쪽.
- 김홍규,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前史」,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21~50쪽.
-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1~308쪽.
- 김홍규,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출판부, 2002, 1~356쪽.
- 류해춘, 「상행위를 매개로 한 사설시조의 성담론」, 『우리문학연구』 22집, 2007, 95~115쪽.
- 이도흠, 「사설시조 담론 주도층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예술적 지향성」, 『한국시가연구』 제36집, 한국시가학회, 2014, 80~117쪽.
- 이수곤, 「‘불륜담’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비교문학』 제52집, 한국비교문학회, 2010, 89~111쪽.
- 이수곤, 「‘결혼 후 찾아온 사랑’에 대한 인식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국제어문』 58집, 국제어문학회, 2013, 381~411쪽.
- 이수곤, 『조선 후기 탈중세적 징후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4, 1~256쪽.
- 이형대, 「사설시조와 성적 욕망의 지층들」, 『민족문학사연구』 17권, 민족문학사학회, 2000, 173~197쪽.
- 이형대, 「사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1~338쪽.
- 정병설 풀고 씀, 『조선의 음담패설』, 예유, 2010, 1~208쪽.

ABSTRACT

Characteristic of the SaSeolSiJo(辭說時調) the appearance of
‘SoDae Nampyen(소대남편, A paramour)’

Yi, Su-gon

This study is analyzing the SaSeolSiJo(辭說時調) which the appearance of paramour and is aimed at discovering the features of the works. SaSeolSiJo is ‘paramour, merchant’ and so on are various characters appear as the guy whom a girl is meeting of the infidelity. SaSeolSiJo the advent of paramour is different from other infidelity.

At the SaSeolSiJo the advent of ‘the lover of others’, A poetic narrator’s attitude reveals sexual desires, but on the condition of hiding. On the other hand, at the SaSeolSiJo the advent of ‘paramour’, A poetic narrator’s attitude revealed rather than to hide. Words and actions are open and honorable. Earlier studies found the value of this work at defiance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order

By the way, I think that ‘SoDae Nampyen’ is a recognized presence. So this be seen an pieces are dramatically reshaping the normal life. This will be looking in detail in the follow-up study.

Key Words SaSeolSiJo, Infidelity, SoDae Nampyen(A Paramour), Confucian Order, Defiance, Dailiness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